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222호 [루체 제23174호] 주제99 (2010)년 8월 10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위대한 김일성조선으로 영원히 빛내여나가자

대통령이 천지개벽되었다.
눈부리 아득히 감자꽃바다가 절
쳐진 백두산천리벌이 굽지의 감자
산지로 전변되고 행복복된 인민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강산에 밟았
이 메아리치고 있다.

지난 5월 또다시 대통령군을 찾
아주신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사
회주의 기상이 힘있게 나래 치고 있는
대통령군은 인민들의 만복이 넘쳐
나는 강성대국의 휘황한 실세를 눈
앞에 펼쳐보이기 시작하였다. 고하
시면서 이 자랑찬 현실은 강성대국
의 평화로운 향하여 노도처 내달리
고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에 대
한 커다란 신심과 약관을 안겨주고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대통령이 천지개벽한 이 자랑찬 현실

은 백두대지에 위대한 수령님의

념원을 활짝 꽂아우실 원대한 구상

을 암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불

면불의의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정도가 안아온 고

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정도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과 정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대통령군을 감자농

사의 본보기로, 살기 좋은 사회

주의학원으로 꾸리기로 결심하

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나

날에 범세 수난많던 대지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복만은 대지도 전

변시킬 원대한 구상을 펼쳐서였고

가렬저절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승리

한 조국의 책임을 내다보시며 백두

용암대지의 드넓은 땅에 대규모농

장을 창설하도록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널원이 현실로 꽂펴난 백두삼천리벌

당의 경도밀에 대통령군이 출지의 감자산지로, 사회주의 학원으로 전변

위대한 수령님의 정도업적을 끌

없이 빛내일 결실을 안으시고 백두

대지에서 감자농사혁명의 포성을

풀려신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바

로 이 역사의 땅에서 친히 대통령

식과학농법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강령적로작물인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며 대하여», «대

통단식과학농법을 일반화하여 감

자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

킬데 대하여»에 장군님께서 대

통령군의 변화를 어떻게 안아오시였

는가 하는것이 그대로 집대성되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6돐에 즐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카보자왕국 국왕, 베히고로동당 전국조정위원회 조정자, 방글라데슈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민족혁명위원회 위원장, 로드니아 사회주의동맹당 위원장, 로씨아자유민주당 위원장, 로씨아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마르트공산주의로동당 위원장, 체이모라비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페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페란드공산주의로동당 위원장, 뽀스카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겸 국제비서, 총비서, 이탈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니아, 이탈리아, 나이제리아, 민주콩고, 뮤너지, 에질트, 베리오피아, 베히고, 베네수엘라, 풀롬비아, 베루, 에파도르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도자 및 천선단체 대표들이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우리는 지금 승리의 전야에 서 있다. 마치도 소할바령회의에서 앞으로의 전략적 단계를 혁명적 대사변의 시기로 규정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한 행정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이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신심 드높이 나아가던 주체 29 (1940년) 그때처럼.

어느덧 70년 세월이 흘렀다. 탁월한 선군혁명으로 오늘의 격동적인 시기를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혁명적 대고조로 빛내여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에서 영원한 태양이시며 불세출의 위인인신 경애하는 수령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자직하였다.

전문과 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6돐에 즐음하여 주체의 김일성상리사회 서기장인 공무원과 주체사장, 국제기구, 주체사장과 편지들을 전송, 총비서, 「끼리기즈」 앤 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로드니아 사회주의당 위원장,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위원장, 페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페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페란드공산주의로동당 위원장, 뽀스카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겸 국제비서, 총비서, 이탈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니아, 이탈리아, 나이제리아, 민주콩고, 뮤너지, 에질트, 베리오피아, 베히고, 베네수엘라, 풀롬비아, 베루, 에파도르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도자 및 천선단체 대표들이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전문과 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서는 세계 전보적인 민들의 마음속에

수행에 기대한 공연을 하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제작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

당대표자회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들끓는 농업전선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를 뜻 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힘차게 내 달고 있는 문덕군 일군들의 일본세가 남다르다. 그것은 장마철 페해마 이작전을 빙틈없이 하고 완강하게 실천하여 농경지와 농작물을 보호함으로써 올해 농사의 좋은 결실을 담보한 사실만 놓고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에서 맞게 일군들이 일본 새와 작품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야 한다.』

지난 7월 어느 날이었다.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안용천수문과 몇 사람에게 서 있었던 일본군원회원과 군법통장경영위원회 책임일군은 비로운 군기판, 군관개판리소의 일군들이었다.

안용천은 점점 불어나 위험수

위로 치닫고 있었다. 드디어 스

빈틈없는 작전, 완강한 실천

문덕군 안의 일군들

위치를 넣자 수문이 서서히 올라가고 오다가도 못 하면 하천물이 때를 만난듯이 사용되며 바다로 흘러나갔다. 일군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이 넘쳤다. 사실 여기에는 군일군들의 남모르는 노력이 것들이 있었다. 음지수에서부터 허천지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인용천은 군의 농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모내기철에는 하천의 물이 흘러드는 생명수로 되고 장마철에는 배수물로 되어 있다. 만일 암용천이 불어나 청제방을 넘어서면 수천정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겨 군의 앞곡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중시한 군일군들은 장마철을 앞두고 이 수문

수리정비에 큰 힘을 넣었다.

일군들은 수차례의 협의회를

가지고 노력, 자재 문제들을 해

당장 65회를 맞는 뜻깊

을 올해에 일군들은 해안방조

체를 끄집어내기 위한 사업을

제작되었는데 해안방조체가

있어 이를 해안방조체를 대

위해 협조될 정황이 생기면

필요한 인원이 즉시에 대처

하는 자료를 세울 수 있는 동원체

계도 정연하게 세워놓았다.

이때뿐이 아니었다.

군일군들은 이것으로 만족하

지 않았다.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해안방조체에 대한 일군들

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 어느 날 군책임 일군은

해안방조체의 어느 한 구간에

폐기기 시작했다는 통보를 받

게 되었다. 즉시에 현장으로

달려가 해체보리니 이 구간의

작전과 군일군들의 빛을 없는

북침전쟁연습은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

조선반도정세를 국도로 격화시키고 북침전쟁의 불길을 허치려는 남조선호전 광들의 도발적인 소동이 갈수록 무모해지고 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이 『천안』 호사건을 구실로 미국과 함께 조선동해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현황에 상훈련을 벌린데 이어 조선서해에서 피뢰단독으로 대침수함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에서 북침전쟁발발의 위험성이 국도로 증대되었다. 조선서해에서 8월 5일부터 9월까지 강행된 전쟁연습에는 피뢰단독과 해병대병력 4,500여명, 구축함, 잠수함, 초계함을 비롯한 각종 함선 29척, 『F-15K』, 『KF-16』 등 50여대의 전투기들이 투입되었다. 피뢰호전광들은 연습의 기본을 빠져공군의 활동전능력을 강화하는데 두고 합포사격, 어뢰발사, 폭뢰 및 기뢰투하, 지상포사격, 공중파괴훈련에 열을 올렸다. 더욱이 업종한 것은, 호전광들이 이번 전쟁연습기간 북남방방이 군사적으로 침해하게 대처하고 있는 조선서해 5개 선 린근수역에서 우리를 타격하기 위한 저상, 해상, 수중전체훈련까지 광란적으로 벌렸다. 남조선호전세력의 이번 불장난소동은 우리와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 할 도전이며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군사적도발행위로서 우리와 민족의 치우는 분수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은 군사적도발행위의 엄증성을 가리우고 여론을 오도하기 위해 이번 훈련이 그 누구의 『비대칭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어적훈련』이라고 벼벌였다. 그러나 피뢰들은 그 무엇으로써 이번 전쟁연습소동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가리울 수 없으며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의 문어구에 이르게 한 책임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북침전쟁연습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천안』 호사건에 따른 『군사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해상군사작전위협이 떠도는 조선반도에서 그 무엇보다 절실히 고기반을 더한 종합적 위협이다. 도발이다.

합선침몰사건 『조사결과』라는 것은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미국과 약합하여 조작한 반공화국과 모락단조품이라는 것이나 날이 명백해지고 있다. 합선침몰사건 『조사결과』는 남조선내에서는 물론 유엔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였고 조사에서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합선침몰사건을 무작정 우리와 련계시킨다면 내외여론에 도전하여 미제침략군과 함께 사상 대규모의 현황에 상훈련을 강행한 한데 이에 피뢰단독의 합동해상전쟁연습을 벌려놓은 것은 대결과 전쟁에 환장한 자들의 부분별한 당동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피뢰군부가 『천안』 호침몰사건을 전쟁연습의 무대로 정한 사실과 북남방방이 군사적으로 침해하게 대처하고 있는 조선서해 5개 선 린근수역에

서 위험한 불장난소동을 벌려놓은 것은 고의적인 도발이다. 이로써 남조선호전광들은 민족적인 합선침몰사건을 까지 우리와 련계시면서 그것을 구실로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결하고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은 것은 대결과 전쟁에 환장한 자들의 부분별한 당동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에서 김정일군에게는 출현하면서 6. 15이후 초기 대결과 함께 북남군관계는 삽시에 악화되고 합선침몰사건을 기록으로 전쟁연습도 막힐 예정이다. 그들은 그 전쟁연습들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그 무슨 『동맹』 판계를 파시며 『도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그것은 과誉지 한 계변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의 일기인 등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사소한 북침전쟁도 막힐지도 드러내보인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자비한 타격으로 도발자들과 그 성장을 속도리제 기동공비를 것이다. 선제타격은 호전광들의 독점물이 아니다. 우리는 피뢰호전광들이 북침전쟁발을 기록사실화하고 불장난소동을 벌리고 동족대결을 격화시키는 반통일적인 범죄행위이다.

남조선에서 김정일군에게는 출현하면서 6. 15이후 초기 대결과 함께 북남군관계는 삽시에 악화되고 합선침몰사건을 기록으로 전쟁연습도 막힐 예정이다. 그들은 그 전쟁연습들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그 무슨 『동맹』 판계를 파시며 『도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그것은 과誉지 한 계변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우리와의 대립으로 남을 끌어들이고 고조될 때마다 대로 정한 정체를 벌여야 한다.

송 영 석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침전쟁연습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요인이다.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내외호전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다. 일촉즉발의 전쟁위협이 떠도는 조선반도에서 그 무엇보다 절실히 고기반을 더한 종합적 위협이며 도발이다.

역사는 남조선에서 강행되는 그 어떤 행위를 더한 종합적 위협이며 도발이다. 역사가 조선반도에서 강행되는 그것이 북남군관계를 더한 종합적 위협이다. 역사가 조선반도에서 강행되는 그것이 북남군관계를 더한 종합적 위협이다.

남조선침략세력이 상대방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불장난소동을 련이어 강행해나온 것은 그들이 조선반도의 긴장과 함께 전쟁연습을 매달리고 벌리고 있다. 그들은 그 전쟁연습들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그 무슨 『동맹』 판계를 파시며 『도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그것은 과誉지 한 계변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의 일기인 등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사소한 북침전쟁도 막힐지도 드러내보인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자비한 타격으로 도발자들과 그 성장을 속도리제 기동공비를 것이다. 선제타격은 호전광들의 독점물이 아니다. 우리는 피뢰호전광들이 북침전쟁발을 기록사실화하고 불장난소동을 벌리고 동족대결을 격화시키는 반통일적인 범죄행위이다.

남조선에서 김정일군에게는 출현하면서 6. 15이후 초기 대결과 함께 북남군관계는 삽시에 악화되고 합선침몰사건을 기록으로 전쟁연습도 막힐 예정이다. 그들은 그 전쟁연습들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그 무슨 『동맹』 판계를 파시며 『도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그것은 과誉지 한 계변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우리와의 대립으로 남을 끌어들이고 고조될 때마다 대로 정한 정체를 벌여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우리와의 대립으로 남을 끌어들이고 고조될 때마다 대로 정한 정체를 벌여야 한다.

송 영 석

통일문제해결에 휘방을 놓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내외의 한결 같은 반대 규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소동들을 련이어 벌려놓은 것은 대화와 평화의 길을 가로막고 북남군관계를 더한 종합적 위협이며 도발이다.

역사는 남조선에서 강행되는 그 어떤 행위를 더한 종합적 위협이며 도발이다. 역사가 조선반도에서 강행되는 그것이 북남군관계를 더한 종합적 위협이다. 역사가 조선반도에서 강행되는 그것이 북남군관계를 더한 종합적 위협이다.

남조선침략세력이 상대방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불장난소동을 련이어 강행해나온 것은 그들이 조선반도의 긴장과 함께 전쟁연습을 매달리고 벌리고 있다. 그들은 그 전쟁연습들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그 무슨 『동맹』 판계를 파시며 『도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그것은 과誉지 한 계변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의 일기인 등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사소한 북침전쟁도 막힐지도 드러내보인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자비한 타격으로 도발자들과 그 성장을 속도리제 기동공비를 것이다. 선제타격은 호전광들의 독점물이 아니다. 우리는 피뢰호전광들이 북침전쟁발을 기록사실화하고 불장난소동을 벌리고 동족대결을 격화시키는 반통일적인 범죄행위이다.

남조선에서 김정일군에게는 출현하면서 6. 15이후 초기 대결과 함께 북남군관계는 삽시에 악화되고 합선침몰사건을 기록으로 전쟁연습도 막힐 예정이다. 그들은 그 전쟁연습들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그 무슨 『동맹』 판계를 파시며 『도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그것은 과誉지 한 계변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우리와의 대립으로 남을 끌어들이고 고조될 때마다 대로 정한 정체를 벌여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우리와의 대립으로 남을 끌어들이고 고조될 때마다 대로 정한 정체를 벌여야 한다.

송 영 석

여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물을 철저히 관찰하자』 발표 13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인문 『빠드리오소프』 제 28호가 절세 위인たち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신문은 『한치의 드림도 없이 로선을 겪지하시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인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 사전을 제시하였다.

신문은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원의 정원이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천안』 호사건을 날조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조선과 련계시키면서 정세를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 사전을 제시하였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깨르야』 7월 3일부는 『김일성주석 서거 1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주의 조선의 시조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깨르야』 7월 3일부는 『김일성주석 서거 1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주의 조선의 시조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외세의 식민지에 속으로부터 조선민족을 해방하시였으며 조선평우에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시었다. 그이께서는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털어쥔 군대와 인민의 위력으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자 짚은 기간에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면시키시였다.

방송은 경에 하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에도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선물과 환장, 메달, 명예 칭호들을 받고 계시였다.

『천안』 호사건을 날조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조선과 련계시키면서 정세를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 사전을 제시하였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깨르야』 7월 3일부는 『김일성주석 서거 1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주의 조선의 시조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깨르야』 7월 3일부는 『김일성주석 서거 1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주의 조선의 시조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깨르야』 7월 3일부는 『김일성주석 서거 1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주의 조선의 시조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깨르야』 7월 3일부는 『김일성주석 서거 1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주의 조선의 시조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깨르야』 7월 3일부는 『김일성주석 서거 1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주의 조선의 시조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깨르야』 7월 3일부는 『김일성주석 서거 1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주의 조선의 시조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깨르야』 7월 3일부는 『김일성주석 서거 1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주의 조선의 시조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깨르야』 7월 3일부는 『김일성주석 서거 1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주의 조선의 시조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깨르야』 7월 3일부는 『김일성주석 서거 1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주의 조선의 시조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깨르야』 7월 3일부는 『김일성주석 서거 1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주의 조선의 시조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깨르야』 7월 3일부는 『김일성주석 서거 1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주의 조선의 시조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깨르야』 7월 3일부는 『김일성주석 서거 1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주의 조선의 시조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깨르야』 7월 3일부는 『김일성주석 서거 1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주의 조선의 시조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깨르야』 7월 3일부는 『김일성주석 서거 1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주의 조선의 시조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깨르야』 7월 3일부는 『김일성주석 서거 1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주의 조선의 시조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깨르야』 7월 3일부는 『김일성주석 서거 1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주의 조선의 시조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깨르야』 7월 3일부는 『김일성주석 서거 1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주의 조선의 시조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깨르야』 7월 3일부는 『김일성주석 서거 1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주의 조선의 시조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인도네시아 신문 『수아라, 깨르야』 7월 3일부는 『김일성주석 서거 16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주의 조선의 시조이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계속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새로운 랭전을 몰아오는 시대착오적인 망동

미국이 조선반도정세를 예측할 수 없는 엄중한 국면에 물어가고 있다. 미호전광들은 남조선피뢰들과 조선동에서 대규모로 합해상훈련을 벌린데 이어 이달 중순 남조선 전역에서 지난해에 비해 3배에 달하는 미군병력과 남조선피뢰군 수단명을 동원하여 『울지 프리덤 가디언』을 동원해 군사연습을 또다시 강행하려 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이미 공표한데 의하면 우리에 대한 『무역시위』와 『강한 압박』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무모한 불장난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멀기까지 계속된다. 결과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연중 내내 침략무력을 증강하여 화약을 퍼우며 전쟁 분위기를 격증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이 조선반도에서 기이하게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는 위험한 만한 행위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가소로운 것은 미호전광들이 군사연습의 목적이 조선반도의 『경화와 안정』을 위해 험방위능력을 강화』 하려는데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그 범죄적 진상이 날날이 드러나 조소비 비난거리가 되고 있는 이번 모략사건이 결코 전쟁연습의 구실로는 될수 없는 것이다. 더우기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전쟁연습판이 『경화』와 『안정』을 위한 것으로 될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도당이 떤 린이 벌리는 합동군사연습들은 그 규모와 기간, 투입되는 전쟁 장비, 훈련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핵전쟁 위협하기 위한 군사적 광란이다.

지난 7월 말 조선동에서 감행된 사상 최대 규모의 험합해상훈련은 보다

20여척의 각종 함선들, 8 000여명의 병력이 동원되었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피뢰도당이 지난 시기 진행한 이와 유사한 합동군사연습에 비해 10 배이상의 무력을 동원한 것으로 된다.

미국의 VOA 방송이 미국의 대규모

미군이 조선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 9 7 6년 8월 판문점 사건 이후 3 4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도한 것은 우연하지 않다.

전쟁연습에 동원되는 전쟁장비로 대부분이 핵공격수단들이다. 미국은 공군북부군부 전지역에 대한 『동시타격』을 진행하는 침략적 흥미에 이번 훈련에 최신형 핵공격수단들을 투입하였다. 험합해상훈련에는 각종 전투기들과 조기 경보기기를 포함한 수십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전쟁반경에 1 0 0 0 km이며 매일 1 5 0 여회 전투작전 기록을 출격시킬 수 있어 일정 『미사니군사기지』로 불리우는 미 제 7 함대 소속 초대 협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였다. 하나님의 전쟁을 치룰 수 있는 무력을 장비한 것으로 『조지 워싱턴』호의 전투작전 기록을 출격시킬 수 있어 일정 『미사니군사기지』로 불리우는 미 제 7 함대 소속 초대 협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였다. 하나님의 전쟁을 치룰 수 있는 무력을 장비한 것으로 『조지 워싱턴』호의 전투작전 기록을 출격시킬 수 있어 일정 『미사니군사기지』로 불리우는 미 제 7 함대 소속 초대 협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였다.

이 모든 것은 조선동에서 강행된 험합해상훈련에 해상은 물론 공중, 수중 등에 험파적으로 벌어진 철두철미 북침 실동연습이고 핵전쟁연습이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이달에 들어와 미제의 부추김길에 남조선피뢰들이 서해상에서 벌린 합동군사연습은 그 도발적 성격이 더욱 두드러져 고였다. 미국은 현재 미공군의 주력을 이루는 『F-1 6』 전투폭격기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절대적 우세』를 나타냈다고 자랑하는 이 위험한 핵선제 공격수단을 일본의 거래나 기지에 진전처치해 이어 이번 험합해상훈련에 들어밀었다.

전쟁연습내용들은 그 침략적 성격이 더욱 짙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도당은 험합해상훈련 전과정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실행 전쟁의 견은 구름을 몰아오는 국악한

모함을 둘러싸고 방대한 무력이 북으로 『전격』하는 것으로부터 협합해상훈련이 시작되었으며 그것을 거점으로 수십척의 전투함과 전투기술기체들이 각각 훈련을 진행하였다.

미국이 『침략적인 적수』로 보는

국제들과 잊혀있는 조선반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남조선은 미제의 침략적 아시아전략수행의 중요한 군사적 발판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을 군사전략적 거점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댔다.

이 모든 것은 조선동에서 강행된 험합해상훈련에 해상은 물론 공중, 수중 등에 험파적으로 벌어진 철두철미 북침 실동연습이고 핵전쟁연습이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이달에 들어와 미제의 부추김길에 남조선피뢰들이 서해상에서 벌린 합동군사연습은 그 도발적 성격이 더욱 두드러져 고였다. 미국은 현재 미공군의 주력을 이루는 『F-1 6』 전투폭격기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절대적 우세』를 나타냈다고 자랑하는 이 위험한 핵선제 공격수단을 일본의 거래나 기지에 진전처치해 이어 이번 험합해상훈련에 들어밀었다.

전쟁연습내용들은 그 침략적 성격이 더욱 짙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이 함께 강행하고 있는 무분별한 합동군사연습들은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의 견은 구름을 몰아오는 국악한

범죄행위이며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전략적 기도의 발로이다.

그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팽성을 불러오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으로서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비난을 자아내고 있다.

미국이 『침략적인 적수』로 보는 대국들과 잊혀있는 조선반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남조선은 미제의 침략적 아시아전략수행의 중요한 군사적 발판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을 군사전략적 거점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동에서 강행된 험합해상훈련에 해상은 물론 공중, 수중 등에 험파적으로 벌어진 철두철미 북침 실동연습이고 핵전쟁연습이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이달에 들어와 미제의 부추김길에 남조선피뢰들이 서해상에서 벌린 합동군사연습은 그 도발적 성격이 더욱 두드러져 고였다. 미국은 현재 미공군의 주력을 이루는 『F-1 6』 전투폭격기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절대적 우세』를 나타냈다고 자랑하는 이 위험한 핵선제 공격수단을 일본의 거래나 기지에 진전처치해 이어 이번 험합해상훈련에 들어밀었다.

전쟁연습내용들은 그 침략적 성격이 더욱 짙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이 함께 강행하고 있는 무분별한 합동군사연습들은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의 견은 구름을 몰아오는 국악한

주 바에서 조선인민과 국제적 대성월간 폐막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에 조인하였다.

그는 조선에서 3년간의 전쟁이 끝난 시기에 구바혁명가들이 몬카마팅을 습격한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국통일은 조선인민의 민족 최대의 원수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영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 같이 떨쳐나온 것이다.

올해 8월 29일은 구바와 조선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0돐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이다.

구바와 국가와 우리나라 애국자의 주역으로 시작된 폐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조선통일에서 조선반도에 대한 철학적인 폐막식을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제폐위를 벌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반동적인 대시아 전략, 세계 체계 전략을 실현 하려는 것은 미국의 범합 없는 정책이며 과평치 한 암망이다. 미국은 『리우후』 3 0 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북의 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졌다.